

2/3/19

설교 제목: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7장 15-29 절

-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마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마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절관주** 창 1:11
- (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마 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 (마 7: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마 7: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마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마 7: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 (마 7: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마 7: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마 7: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 누가복음은 6장 20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을 택한 직후 제자들과 몰려든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산에서 가르친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눅 6: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눅 6: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눅 6: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눅 6: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눅 6: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눅 6: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눅 6: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눅 6: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예수님이 열 두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고 갈릴리 해안 가까이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 주셨고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 7: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마 7: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기에 무리들이 놀랐는지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은 목수답게 산상수훈을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로 마무리하셨는데 결국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 위에 원하는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만사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워 중국에는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당장 시험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기초를 무시하고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은 학생은 그 다음 단계를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비단 공부 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도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아 훈련시킬 때 축구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선수들의 체력을 튼튼히 다지는 기초 체력 훈련에 할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초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실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으며 귀신도 쫓아 내고 많은 권능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떠나가라고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 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세상의 법에 대한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들은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이 성행한지라 불법을 행하는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들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한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 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 7:20) 이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납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리가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또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마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 7: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 7: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 7: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집 재료로 가장 견고하다고 손꼽히는 철이나 돌, 아니면 벽돌 등을 재료로 써 지은 집일지라도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으면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에 터를 잡고 인생의 집을 지으면 비와 창수와 바람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 28:14) 이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지어다

(사 28: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 28: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 28:17)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사 28:18)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인생들은 어리석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자기 자신, 세상의 권력, 부, 남편, 자식 등등이 사망이며 무덤이며 거짓이며 허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때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삼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까지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약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약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 (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 (약 2: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 (약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약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 (약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 (약 2: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 (약 2: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남자가 나이가라 폭포 한 쪽 끝과 또 다른 쪽 끝을 줄로 연결하여 놓고 자전거로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경하느라고 사람들이 구름 때 같이 모여 들었습니다.

남자가 자전거로 나이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외줄을 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열광을 합니다.

그때 남자가 사람들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외줄을 타려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믿는다고, 당신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그럼 내 뒤에 타서 나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타 이 폭포를 건너시고자 하시는 분은 나와 주십시오”

갑자기 장내가 쥐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는 이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한대로 이 남자가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고 외줄을 타서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100% 믿는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이 남자의 자전거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남자의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과는 달리 이 남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송두리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집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런 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닦아야만 합니다.

이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여야만 합니다.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집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잡고 지을 때 그 집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기초 즉 반석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